

광주·전남 아기 울음소리 커졌다

●통계청 '7월 인구동향' 발표

출생아 수 광주 564·전남 726명 전년비 62·97명 늘어 전국 출생아 1천516명 ↑ ...증가 폭은 12년 만에 최고치

광주·전남 지역의 7월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모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광주지역 출생아 수는 564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502명)과 비교하면 62명, 전남은 726명으로 같은

기간(629명)에 비해 97명이 각각 증가했다.

광주·전남의 지난해 총 출생아 수는 각 6천172명, 7천828명으로 조사됐다.

두 지역 모두 7월 출산율이 증가했지만 코로나19 이전의 출생아 수를 회복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파악된다.

광주는 2019년 8천364명, 2020년 7천318명, 2021년 7천956명, 2022년 7천446명으로 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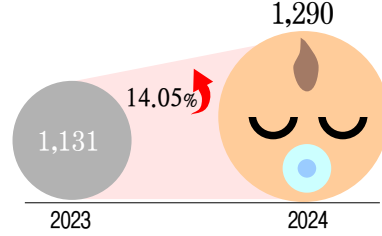
전남은 2019년 1만832명, 2020년 9천738명, 2021년 8천430명, 2022년 7천888명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 광주·전남 사망자 수는 2천272명(광주716·전남1천556)으로 나타났다.

두 지역 모두 여전히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는 981명(광주 152·전남 829)이 자연감소했다.

광주·전남의 결혼 건수는 지난해 동

광주·전남 7월 출생아 수 (단위:명) /자료 : 통계청



월 대비 두 자릿수대 증가율을 보였다.

광주의 7월 혼인 건수는 500건으로 작년 동월 351건 보다 42% 늘어났고, 전남 역시 같은 기간 429건에서 575건으로 34% 증가했다.

전국의 출산율도 크게 늘어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전국 7월 출생아 수는 2만601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천516명(7.9%) 늘었다.

7월 출생아 증가 폭은 같은 달 기준으로는 2012년(1천959명 증가) 이후 12년 만의 최대치다.

증가율로 보면 2007년 7월 12.4% 증가 이후 가장 높다.

다만, 1-7월 누적 출생아 수는 13만7천913명으로 지난해보다 1.2% 줄었고 4월, 5월, 7월은 전년보다 출생아가 늘었지만, 나머지 기간 감소 폭을 상쇄하지

는 못했다.

시도별 출생아 수는 광주·전남을 포함해 14개 시도에서 증가했고 전북, 제주는 감소했으며 강원은 전년과 유사했다.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粗)출생률은 4.8명으로 지난해(4.4명)보다 0.4명 늘었다.

7월 사망자 수는 2만8천24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99명(0.4%) 증가했다. 지난해(0.5%)에 이은 2개월 연속 증가세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는 7천639명 자연 감소했다. 인구는 57개월째 줄고 있다. /안태호기자



'가을 세일 워크' 행사 진행 농협유통·농협하나로유통이 활동하기 좋은 가을을 맞아 다음달 9일까지 하나로마트에서 과일과 육류, 채소 등 '가을 세일 워크' 행사를 진행한다. (농협유통 제공)

광주은행, 지역인재 장학금 1억3천만원 전달

광주은행은 최근 본점에서 광주·전남지역 출신 장학생 대표 4명을 초청해 (재)광주은행장학회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사진)

(재)광주은행장학회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자치단체를 비롯한 기관으로부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광주·전남지역 출신 학생들을 추천받아 104명의 장학생을 선발했고, 총 1억3천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했다.

특히, 장학생으로 선발된 영어영문학과 재학생인 A군(21세)은 글로벌 회계사를 목표로 교내 봉사동아리를 통해 국내·외 봉사활동 참가, 지역아동센터에서 생활하는 아이들 대상 정기

적인 재능기부(영어 수업)로 따뜻함을 전하고 있으며, 우수한 학업 성적과 성실한 품행으로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쳤다고 장학생의 의미를 더욱 드높였다

광주은행은 지난 1981년, 재단법인

광주은행장학회를 설립해 올해까지 43년 동안 4천600여명의 지역 장학생들에게 총 39억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급해 오며 명실상부한 지역 장학사업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임채만기자



GICON, 꿀잼광주 GTT Festival 개최

29일까지 광주 에이스페어 연계 운영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GICON)은 25일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국내 최대 콘텐츠전시회인 2024 광주 에이스페어(Ace Fair)에서 '꿀잼광주 GTT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페스티벌은 광주의 독자적인 콘텐츠와 OTT(Over-the-Top)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알리고, OTT 플랫폼 영상문화 콘텐츠 제작지원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지역의 콘텐츠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고, 광주가 콘텐츠

창작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OTT 제작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된 작품이 올해 처음 공개되며 홍보관에는 OTT 플랫폼 제작지원 15개와 스토리 제작지원 11개, 스토리 공모전 등 다양한 콘텐츠가 관람객의 이목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또한 OTT 퀴즈, 포토존 등 다양한 이벤트들이 준비돼 있고 콘텐츠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다.

이경주 GICON 원장은 "민선 8기에 들어서며 시민들과 함께하는 축제가 확장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지역 콘텐츠 산업이 더욱 활성화되어 광주가 꿀잼도시로 나아가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OTT 플랫폼 영상문화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은 광주 영상콘텐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광주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추진해온 사업이다. GICON은 이 사업을 통해 지역의 창작자들이 OTT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안태호기자

광주국세청, 군산서 '찾아가는 세금교실'

광주지방국세청은 25일 군산세무서 2층 대강당에서 군산관내 창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금교실'을 진행했다. (사진)

'찾아가는 세금교실'은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창업 초기 세금을 몰라 어려워하는 사업자에게 유익한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사업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 내용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요령,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납세자권익보호제도 안내 등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내용

으로 구성됐고, '알면 절세, 모르면 불이익'이라는 주제로 부가가치세 사업공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금교실'을 진행했다.

광주국세청은 강의를 마친 후에는

창업자·소상공인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상담실을 운영해 참가자들의 세금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도 할애했다.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세금교육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은성기자



변하기 쉬운 신선제품 처음 그대로 신선도 유지 제품 개발 화재!

포도, 새우, 김치, 깍두기, 과일, 야채, 소고기, 굴비, 치즈, 조개, 생선 등 얼음 아이스팩을 넣어도 변질되기 쉬운 제품 1일이 넘으면 안심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젠 걱정 끝!

푸른도깨비 1팩만 넣으면 **5일동안 신선함**을 그대로 유지하는 제품이 개발되어 신선 제품을 택배로 발송하는 사업후 여러분의 근심을 덜어드립니다.

신선함 그대로 푸른도깨비

자연과 생명 연구소

1팩을 넣어서 택배를 발송하면 5일동안 변질이 없습니다. 처음 그대로 신선함을 유지시켜 줍니다. 1팩당 500원

푸른도깨비를 택배에 1팩을 동봉하여 발송하면 5일동안 변질없이 처음 그대로 유지됩니다.

공정, 택배물류센터 환영!

무료 신청 택배비 소비자 부담, 본사 메일로 신청 yunanbio@naver.com

전국 시도 총판 모집

대양식품(주)

본사 080-374-5046

기술제휴 | 자연과생명연구소

광주 지사 010-3738-8989

062) 525-7585